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 선사

부안 내소사, 11월13일 힐링 산사음악회 개최

위드코로나 맞아 성황이뤄
진성 스님 "공존의 인식을"
강지민·진성 등 가수 출연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수 진성 씨의 무대를 불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가을 정취가 한층 무르익고 있는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11월 1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모처럼 만에 나들이에 나선 대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내소사,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을 주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광주교통방송 최한아름 아나운서의 사회로 광주무형문화재 '하늘땅 두드림' 의 사물놀이, 주지 진성 스님 인사말, 부안군 권익현 군수 등의 축사,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 , 통기타가수 강지민, 트로트가수 진성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하늘땅 두드림' 의 국악 모듬북 공연에 이어 정통성악그룹 빅맨싱어즈는 주옥같은 오페라곡과 트로트메들리로 음악회의 흥을 끌어올렸고 강지민 통기타 가수는 라이브 카페의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사랑이여 등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선곡으로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에 등장한 트로트가수 진성은 공연 중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릿고개, 님의 등불, 안동역에서, 울엄마 등의 히트곡을 불러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참아냈다"고 위로하고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지구라는 생명의 요람이 내 것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들과 함께 배려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내소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그간 참고 쌓았던 감정을 털어버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에서 "만추의 계절 산사음악회를 축하드린다. 이 산사음악회는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를 밝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부안군을 휴식과 안식, 활기찬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악회 시작 전에는 연등만들기, 소원합장주 만들기, 전통 손거울 만들기, 손수건 페인팅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내소사 템플스테이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과, 권익현 부안군수,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위드코로나 시대 이후 처음열린 음악회를 축하했다.

응공조계종 창종10주년 맞아

11월 11일 동명사에서 기념법회 봉행



사단법인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이 11월 11일 창종 10주년을 맞아 총본산 동명사에서 창종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웅전에서 열린 이날 기념법회는 타종, 집회가, 육법공양, 발원문, 바라작법, 운심 공양게, 중단권공, 오공양작법, 살풀이, 찬불가, 종사이운 등이 진행됐다.

이날 법회서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원로회 법등, 홍원, 수덕, 혜광, 동화, 해인, 지암 스님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혜진 스님은 대중을 대표해 "창종 제10주년 기념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중생이 삼독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 속에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한다"며 "응공조계종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려 하니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여 정법에 귀의한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고 구원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지"고 발원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창종 10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과 중생교화, 사회구제, 지역불교 발전에 헌신한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상종 진신사리 친견법회

11월 14일 효총사 법당서 봉행

사단법인 대한불교 태상종 총본산 효총사(주지 지광)는 11월 14일 경내 4층 법당에서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친견법회에는 효총사 주지 지광 스님과 지명 스님, 지영 스님 및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태상종 종정 지광 스님(효총사 주지)은 "오늘 이 자리서 친견하는 진신사리에는 치유의 기운이 서려있다. 청정한 기운을 받아가는 귀한 자리"라며 "삶 속에서 병고, 액난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대생명력과 치유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 운명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 가피로 살아 있는 '적멸보궁' 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053)959-0490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산신대재 봉행



지장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이 산신대재를 봉행했다. 11월 13일 산신각에서 봉행된 산신대재는 간다르바 풍물패의 사물공연을 시작으로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애불전에서 봉행된 2부 행사에서는 성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요잡바라, 사물공연, 박준영 명창의 판소리 공연이 진행됐다.

도솔암 산신대재에 동참한 불자들은 마장 장애 일시소멸, 선한 인연 상봉, 심중소구소원 속득성취 및 사업번창 성취 등을 발원했다.

성본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솔암 산신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와 의운국사 두 분의 스님"이라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그동안 많은 불자들이 산신대재에 동참했는데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 상황 때문에 일부만 참석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도솔암 산신대재는 방역당국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은사, 스리랑카 카티나 법회 개최

14일 70여 스리랑카 불자 참여



스리랑카 불자들을 위한 카티나 법회가 열렸다.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11월 14일 대웅전에서 스리랑카의 전통 법회를 개최했다.

카니타 법회는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3개월의 우기 안거 동안 수행 정진한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올리는 법회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회를 통해 타국에서 고생하는 스리랑카 불자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 중·고등학교 건학위원회 발족

11월 16일 태공도서관서 개최



동국대 법인이 4월 29일 '실천적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제2건학 중흥 추진' 의 목적 아래 출범시킨 건학위원회가 11월 16일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등학교 건학위원회 발족을 마지막으로 모두 발족했다.

11월 16일 금산중고 태공도서관에서 열린 건학위원회 발족식은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박기남 교장, 박동창 교감, 동국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족식에 앞서 돈관 스님은 학교시설과 법당을 둘러보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발족식은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의 격려사, 박기남 교장의 환영사, 박동창 교감 및 사무국장의 건학위원회 현황보고, 건학위원 위촉장 수여로 진행됐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금산중·고등학교 건학위원회는 제2 건학을 통한 새로운 금산중·고등학교 미래를 연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며 "이 고장 불교계 선지식·선각자들께서 귀중한 정재를 모아 설립한 학교에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해 인류사회에 공헌하자"고 당부했다.

금산중고 박기남 교장은 "교직원 모두가 포교사의 마음으로 건학이념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불제자로서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청소년들이 불교적 인성과 재능을 고루 갖춘 역량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착한벗들, 농수산물 나눔 눈길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나눔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주지)과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전주지역본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11월 12일과 14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농수산물이 도움이 필요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및 한가정에 전달됐다.

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착한벗들은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이지만 향후 이주민 자원봉사단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사회 봉사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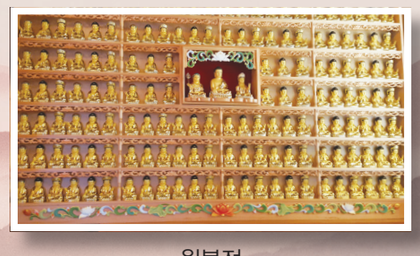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